

“87% 강력범 신상 공개”

여론조사 찬성... 반대는 8.9%

국민 10명 중 9명은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강력 범죄 피의자의 개인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7.4%로 나타났다.

반면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

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8.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특히 대전·충청·세종(92.1%)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이어 부산·경남·울산(89.4%), 대구·경북(88.3%), 수도권(86.0%), 광주·전라(81.3%)의 순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대다수였다. 50대(89.6%)에서 가장 높았고 40대(89.1%), 30대(87.7%), 20대(85.3%), 60세 이상(85.2%)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87.4%)과 여성(87.4%) 모두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60%)와 유선전화(4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p다.

/박용주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11일 오전 숲 전문가, 학부모 등과 함께 아이들 전용 자연생태 학습공간으로 송천동 건지산 조경단 인근에 조성된 아이들 놀이터 임금님 숲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아이들이 자연과 벗하며 뛰어놀아요”

김승수 전주시장, 건지산 아이숲 조성 현장 점검

전주의 숲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자연생태 놀이터로 거듭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1일 건지산 조경단 인근 '임금님 숲'을 방문해 전주 아이숲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21대 조인 이한 공의 묘소인 조경단의 유래를 담아 명명된 '임금님 숲'은 기존의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빛줄기 불암벽과 징검다리, 울막 등이 조성돼 아이들이 마음껏 자연을 벗하며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다.

이날 김 시장은 숲 전문가와 학부모

등과 함께 아이 숲의 지형물 등 조성 현황 등을 점검하고, 숲의 보완·개선 사항 및 조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아이들을 위한 자연생태 놀이터 전주 아이숲이 조성된 곳은 '임금님 숲' 남부권 남고산 인근의 '딱정벌레 숲' 등 모두 2곳이다. 시는 지난해 총 3000만원을 들여 완산구와 덕진구에 각각 한곳씩 아이숲을 조성했으며, 이달 중 전주 아이숲 공식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조성된 두 곳에 이어 오는 2017년까지 중앙부처와 전북도

시의회, 다올마당 위원 등과 협의를 거쳐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숲을 10곳까지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많은 전주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보다 씩씩하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 아이숲은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우리 아이들이 숲을 경험하고 자연을 벗 삼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전주시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선정,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평판과 대나

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측량돼 현재는 변형·훼손되고 실제 토지와 맞지 않는 종이지적도를 현대의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은 완산구 석구1지구와 덕진구 고당4지구, 반월1·2·3·4지구, 화전1지구 등이다.

시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경제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

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적제도 선진화로 만들어진 디지털 지적은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도식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보안관찰법 위반 한상렬 목사 벌금형

보안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전주교백교회 목사(66)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강두래 부장판사)는 1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목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증거들에 비춰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심판을 신청했지만, 현재가 지난해 11월 26일 합헌 결정을 내려 위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한 목사는 지난해 4월 28일 전주지법에 보안관찰법 상 신고의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제정을 신청한 바 있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인 한 목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3년 8월 20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에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소 후에도 7일 이내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잡입·탈출)을 비롯한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기 합

계가 3년 이상인 자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보안관찰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용주 기자

눈길 교통사고 뺑소니범 1년 5개월 만에 '덜미'

눈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뺑소니범이 1년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11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장모(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4년 12월 4일 오전 8시 30분께 차를 몰고 전주시 서신동 가련교를 지나다 A(57)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은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장씨는 이날 교량에 쌓인 눈에 미끄러져 A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경찰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내고 겁이 나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안진수 기자

전주시의회 폐기물특위 수도권 처리시설 견학

전주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구)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안산 자원회수시설,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 비교견학에 나섰다.

위원회는 첫날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음식물 처리장, 자원회수시설 영상물 시청한 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과정, 재활용품 반입·선별 과정, 생활쓰레기 처리 및 소각과정을 견학했다.

또한 특위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 인천, 경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찾아 매립 과정 및 매립 완료 후 매립지 사후 관리 현황을 살펴봤다.

의원들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상태와 폐기물 처리과정, 수도권매립지 시설을 꼼꼼히 둘러보며 오는 9월 말 준공 예정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에 도입할 선진사례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완구 위원장은 "타 기관의 우수 사례에 대해 우리시에 적용 가능토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 운영

전주시가 시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주보건소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시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이상지질혈증 2일 교실을 운영했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를 뜻하며, 심뇌혈관질환(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주요 원인이 되지만 자각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철저한 예방 및 관리, 주기

적인 검사가 필수인 증상이다.

이번 예방 교실에서는 이상지질혈증 질환자와 가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질환·영양·운동 등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먼저 1일 차 교육에서는 혈압·혈당·총콜레스테롤 측정 및 체성분 검사를 시작으로, 이상지질혈증의 정의와 운동의 이해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와 운동 시 주의사항 교육 및 이상지질혈증 관리 운동 실습으로 운영됐다.

2일 차 교육은 합병증 검사를 위한

단백뇨 측정, 질환과 관련된 올바른 건강 상식, 구강건강관리, 식요법 강의 및 실습,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한 웨빙 샐러드 시식회 등으로 진행됐다.

전주보건소 관계자는 "만성질환 상설 2일 교실은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돼 전주 시민의 자가 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 교실에도 전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보건소 만성질환상담센터(063-281-6338~9)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순창이 참좋다

순창 종합 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